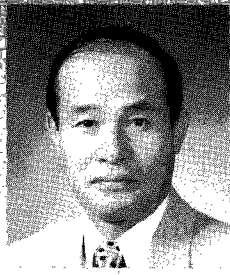


편집위원 칼럼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오 경 록
남덕씨니테크 이학박사

생물이란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활동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생명이 있는 물체는 종족번식을 위한 생식과정을 거쳐 다음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 생물체의 생활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극히 작은 생물(미생물)은 시각적으로 볼 수 없어 일반인은 감각으로 느낄 수 없기 마련이며 전문가들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쉽게 보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기 쉬우며 안이하게 취급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생물에도 인간에 유익한 생물과 해가 되는 생물이 있는 것과 같이 미생물에도 유익한 미생물과 해가 되는 미생물이 있는 것이며 더구나 해가 되는 미생물(병원미생물)이 생물체의 질병하고 관련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라고 경시해서는 커다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병원미생물도 살아있는 개체이므로 번식을 위한 증식을 하게 되어 있고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말 소의 부루셀라 생균백신과동도 미생물의 이러한 기능성을 경시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생균(생독)백신은 병원미생물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병만 보고 미생물이 아닌 무생물로 인식하기 쉬우므로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기 쉽다.

생균(생독)백신의 미생물은 살아있으므로 증식, 변화의 정도는 환경과 숙주의 상황에 따라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생균(생독)백신에 이용되는 병원미생물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문제점(병원성)을 제거하여 사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의 변화는 언제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균(생독)백신은 개발되고나서도 최종적으로 직접사용대상(동물)의 수많은 적용과 사용횟수를 거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백신으로서 사용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생균(생독)백신의 개발과 사용은 사균(사독)백신보다도 많은 세월과 투자가 필요하게 된다.

최근의 가금티푸스 방역을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가금티푸스생균백신(9R)도 사용에 따른 장점보다는 단점에 의한 양계인의 피해와 살모넬라균에 대한 방역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면 심사숙고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

물론 최근에 개발되어지고 있는 생균(생독)백신은 생균(생독)의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제거되었다고는 하지만 9R백신은 개발되어질 때의 과정과 시험보고서 및 후진국에서의 사용 실태를 볼 때 사용을 하고자 하면 검토할 점은 아직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양계인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에서 9R백신의 사용을 바라는 마음을 관계기관에서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일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격리된 사육실험실에서 생균백신을 사용할 때 우려되는 최소한의 문제점(병원

현실적으로는 많은 양계인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에서 9R백신의 사용을
바라는 마음을 관계기관에서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일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성 및 전파)만이라도 최단기간에 검사하여 발표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 양계인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안다.

모르는 소리 말라고 덮어 버리려고만 하다가 양계인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밀려서 결국 행정적인 처리과정에 떠밀려 사용하게 된다면 부루셀라 백신과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충분한 검토에 입각한 실험을 통한 결과에 따른 결론만이 백신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거나 많은 세월동안 논란되어 왔던 9R백신 사용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만이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상호협조하고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쪽으로부터 치우쳐진 사고로 각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다보면 해결의 기회는 만들기 어렵게 된다.

현재 가로막고 있는 벽이 또 다른 길로 통하는 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흑백논리에 젖어 있는 우리 사고의 개방만이 창의성, 다양성, 전문성을 요구하는 미래를 슬기롭게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양계**